



전주대, 취업 서포터즈 8기 발대식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25일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취업 서포터즈 8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서포터즈 대표 선서, 청년고용정책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안내 서포터즈 홍보 전략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취업 서포터즈 8기는 서류와 면접을 통해 45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청년 친화적인 정책과 지원 사업을 브이로그, 카드 뉴스, 각종 이벤트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12월 말까지 총 9개월 동안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서포터즈에 참여하게 된 김다솔(경영학과 3년) 학생은 "우리 지역 청년층에게 청년고용정책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프로그램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상행 센터장은 "단순한 홍보가 아닌 책임과 목적의식을 갖고 자신의 역량을 키우면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프로그램과 다양한 청년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며 "취업 서포터즈를 통해 청년층에게 유용한 정보를 더욱 친근하게 전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이북산장학회, 상반기 2450만원 장학금 지급

이북산장학회(이사장 성하익)는 지난 25일 전주온고을중 2학년 유하선 외 14명, 군산고 1학년 박세훈, 전라고 김준성의 23명 등 총 29개교 40명에게 상반기 장학금으로 2,45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3년은 창립 16주년을 맞아 장학생 176명을 배출 대학생 회원에게는 연수비 100만원 등 총 61명에게 제 공했다.

한편 이북산장학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워크숍을 진행했다. 지난 1월 14~15일 1박2일 동안 임실 청소년 수련원에서 71명의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2023년도 대학 진학 상황을 살펴보면 전북대학교 나 현서 원광대학교 도희진 이대근 성규관대학교 박상민 서울시립대학교 유희령 우석대학교 주은혜 부산대학교 백승준 최은호 건국대학교 김대환, 전주교육대학교 김소희 등이 있다.

이북산장학회 관계자는 "장학생들이 모범적인 생활로 전라북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지역 인재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리더 교육 여정 마무리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는 활기차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동체 리더 역량 강화 교육'을 지난 24일 마무리했다.

공동체 리더 역량 강화 교육은 지역 내 공동체 1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의 여정으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은 마을민들기 사업의 이해와 공동체 리더십 증진, 창업공동체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 SNS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등 공동체 리더들의 실무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춰 구성됐다.

공동체들은 건설적인 마을민들기 사업 계획과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청안대회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 간의 원활한 소통과 참여로 성공적인 마을민들기 사업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체 리더들이 구성원들과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주민 간의 원활한 소통과 참여로 성공적인 마을민들기 사업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양 도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앞장”

전주시·남원시, 고향사랑상호기부 협력 강화

전주시와 남원시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병기 전주시장과 최경식 남원시장은 27일 남원시장실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협약식'을 갖고, 전주시민과 남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전주와 남원은 고려왕조의 끝과 조선왕조의 시작이 닿아있는 지역으로, 고려 장군 이성계는 남원 황산에서 육지에 집합한 왜적을 섬멸한 후 개성으로 가는 길에 선조와 친자들이 살던 전주에 도착해 오목대에서 승전을 축하하며 새로운 국가에 대한 꿈을 그린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양 도시는 또 최근 4차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3년도 드론 실증도시'에 함께 선정되는 공룡점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전주한옥마을에서 비빔밥 등 드론을 이용한 배송시스템을 구축하고, 남고산을 중심으로 '드론 산발 초기진화 실증'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남원시도 2023 FAI 드론레이싱 세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전주시와 함께 힘을 모아 전북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드론산업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날 "양 도시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주시고, 직접 남원까지 오신 우병기 전주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뿐만 아니라, 드론 산업을 포함한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병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와 남원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를 통해 양 지자체 제도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4차 산업 핵심분야 드론 산업에서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9대 구천동농협 김성곤 신임 조합장 취임

제9대 구천동농협 조합장 김성곤(56세) 취임식이 3월 21일 전북 무주군 실천면 구천동농협 2층 회의실에서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및 각 기관 단체장들과 농민,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이 진행됐다.

김성곤 조합장은 취임사에서 하나라마트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합리적 가격은 물론, 소농경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농협, 조합원을 위한 복지정책등을 통한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구천동농협을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군산부설초, 리더십 캠프 성료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양규)는 지난 24~25일 이틀 간 서천군 청소년수련관에서 리더십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더십 캠프는 군산부설초 전교어린이회 및 학급어린이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학생 자치회 활동을 통한 리더역량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에는 진안부곡초등학교 정성우 교장의 진정한 리더의 조건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리더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투비즈를 이용한 미션클리어'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에는 서천군 송림 숲에서 지도와 나침반을 이용한 '오리엔티어링' 프로그램을 진행, 협업과 집단 지성의 힘을 체험하기도 했다. /정은성 기자

김제시, 제13회 용지농원 마을의 날·망향제 개최

김제시 용지농원마을에서는 지난 25일 제13회 용지농원 마을의 날 및 망향제를 개최하고 황해남도 실향민들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아픔을 나누면서 화합과 친목을 다지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용지농원청년회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정성주 김제시장 김영자 김제시의회의장 전라북도 황해도민회 경흥락 회장과 임원들 및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특히 오후에는 친선게임, 노래자랑 등을 통해 실향민들이 단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며 밝은 웃음을 띄고 활기찬 모습이였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망향제를 통해 실향민들이 고향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 염원이 이루어져 한반도 철의 장막이 베를린 장벽처럼 무너지는 그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용지농원에는 실향민 162가구 368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961년 14후퇴 당시 황해도 장산곶에서 피난으로 내려온 국토분단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보건소, 결핵 예방수칙 준수·조기 검진 중요성 강조

정읍시가 '제3회 결핵 예방의 날(3월 24일)'을 맞아 결핵 예방 관리의 중요성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결핵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고 격리와 장기치료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질병 부담을 초래하는 감염병이다.

특히, 결핵균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결핵환자가 말과 기침, 재채기 등을 할 때 공기 중으로 배출된 균이 타인을 감염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결핵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염성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지난 2월부터 결핵 발병 위험성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홍보 X선 촬영을 하고, 유증상자의 경우 객담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아동복지기관협의회 회의 개최

남원시는 27일,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관내 아동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남원시 아동복지기관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금년도 제1차 아동복지기관 협의회로, 지역자원 및 서비스 제공 관련 협의·조정 역할과 각 기관 간 대상자 및 서비스 등의 공유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변화를 위해 효과적인 공동 개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에서는 위원장(여성가족과장) 인사말을, 위원 위촉, 기관별 프로그램 소개, 지역자원 및 서비스 제공 연계 방안 공유가 논의되었다.

한편 차미희 여성가족과장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들의 복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연계 지원 등을 협력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꿈을 꾸며 잘 자라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 적십자봉사회, 봄맞이 이동세탁봉사활동

전북적십자사 정읍지부협의회(회장 김순덕)가 27일 정읍시 신대인읍 표천노인정에서 봄맞이 이동세탁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적십자 봉사원 17명이 참가해 신대인읍 일대의 독거노인, 취약계층 20가구를 방문하여 겨울 동안 묵은 이불 및 담요 약 200kg를 직접 수거하고 적십자 이동세탁탕을 활용해 세탁한 후 집집마다 다시 배부했다.

김순덕 회장은 지역의 이웃들이 봉사원들이 사랑으로 세탁한 이불, 담요를 받으시고, 산뜻한 봄기운을 느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읍적십자봉사회는 이밖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물품 전달 봉사, 말벗 봉사, 반찬 나눔 봉사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우석대 부속 전주한방병원-S한방병원, 제후 협약

우석대학교 부속 전주한방병원과 전주한방병원이 업무제휴를 맺고 본격적인 교류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주한방병원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송범용 전주한방병원장과 박수인 전주한방병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업무제휴 내용으로는 △의뢰정보 및 직인 교류 정보 교류 △의뢰기류 자문 및 견학 △상호 환자이력 및 검사의뢰 등이다.

송범용 전주한방병원장은 "전주한방병원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지역 국민보건 향상과 보건 의료계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수인 전주한방병원장은 "업무제휴 분야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석대학교 부속 전주한방병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은성 기자



고창스카우트 모양지역대, 새만금잼버리 출정식

한국스카우트전북연맹 고창지역연합회 모양지역대(단체장 김도형)가 지난 24일 군민복지회관에서 2023년 진급식과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표단 출정식을 열었다.

행사는 스카우트 모양지역대 대원과 지도자,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현곤 일로대장의 장학금 전달과 일로대장의 그간의 공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감사패 전달식, 지도자와 청소년 대원의 수상식이 진행됐다.

이어 2022년 활동 현황 보고, 41명 진급대원의 진급증서 전달식과 함께 잼버리 대표단 출정식, 잼버리 준비사항등이 안내됐다. /고창=김영식 기자